

정부, WTO 무대에서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 나서

- 2026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계기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 협상 전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3.3.~6)에 참석하여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다.

금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반도체, 철강, 가전,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및 에코디자인 규정 ▲인도네시아 가전 및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금번 위원회 계기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강화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무선통신기기 인증 규제, 유럽 연합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지난해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중간재 인증 애로 및 톨루엔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 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올해도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 총괄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책임자	과 장	정병락 (043-870-5540)
		담당자	사무관	고영노 (043-870-5356)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 술 (043-719-1551)
		담당자	사무관	황재양 (043-719-1552)



□ WTO TBT 위원회 활동 개요

- WTO TBT 위원회 특정무역현안(STC*) 대응(3, 6, 11월) 및 기타 TBT 현안 관련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대응

* Specific Trade Concern으로 각국이 TBT 위원회 회의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기술규제 현안

□ '25년 WTO TBT 위원회 대응 성과

구분	국가	업계애로	대응	성과
1차 (‘25.3)	인도	디지털TV 위성수신기 강제인증 제도의 급박한 시행에 따른 인증 지연 및 우리 업계 수출 차질 우려	STC 제기	시행 유예 (‘25.4.26→‘25.10.26)
	튀르키예	비도로용 이동식 기계(굴삭기, 불도저 등) 수입 검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증빙 요구 등으로 통관 문제 발생	양자협의를	통관문제 해소
	인니	철강 제품 강제인증 시행 확대(안)의 급박한 시행으로 업계 수출 차질 우려	양자협의를	시행 유예 (‘25.5→‘26.5)
2차 (‘25.6)	인도	철강 중간재 강제인증 적용으로 일관 제철소 생산품 인증 절차 진행 및 수출 차질 우려	양자협의를	일관제철소 생산 제품에 대한 강제 인증 면제
	인도	기계 및 전기 장비 안전 규정의 급박한 시행예고로 업계 수출 차질 우려	STC 제기	규제 철회
	호주	상용화된 대체재가 없는 브롬계 난연제(DBDPE*) 수입·사용 금지안 발표로 동 물질을 사용하는 자동차, 건설기계, 가전, 의료기기 등 수출 차질 우려 *Decabromodiphenyl Ethane으로 플라스틱, 전선, 케이블 절연재에 사용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시행 유예 연장 (‘33→‘37년) 및 건설기계 등 우리 수출품목 관련 시행 유예 대상 포함
	베트남	정보통신제품에 내장된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성능 시험 요구로 업계 부담 가중 *ICT 제품 내장 배터리에 대해서는 통상 안전 시험만 요구	STC 제기	성능 시험 표준안 철회
	인도	과도한 톨루엔 순도 기준(99.7%) 도입으로 업계 수출 차질 우려	STC 제기	규제 철회
3차 (‘25.11)	인도	과도한 톨루엔 순도 기준(99.7%) 도입으로 업계 수출 차질 우려	STC 제기	규제 철회